

OPEC 150만배럴 추가감산 의미는 ???

산업자원부는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150만b/d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의 회복 지연과 비OPEC의 지속적인 협조의 불확실성, 석유시장의 선반영 등을 이유로 단기간 유가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1년 11월14일 제118차 총회 이후 감축계획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항으로 상당부분 유가에 반영돼 급등요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Dubai유 기준 국제유가는 11월14일 배럴당 17.28달러에서 11월30일 18.15달러, 12월26일 19.55달러, 12월27일 18.81달러, 12월28일 18.77달러로 18달러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원유 도입동향

(단위: 1000bbl, 100만달러, %)

구 분		2001	2002	증감
원유 도입	물량	859,393	886,000	3.1
	금액	20,036	19,935	△0.5
	단가	23.31	22.5	△3.5

+ 2001년 단가 : CIF 기준 연평균

++ 2002년 단가 : 2002년 국제유가(21달러)+예상가격차(1.5달러)

또 2002년 감산은 비OPEC 국가의 50만배럴 감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OPEC의 감산이행, 이행기간 등 협조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 등 비OPEC 국가들은 국가별 생산량을 통제하는 특별한 규제장치가 없어 자국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IEA는 2001년 OPEC의 350만b/d 감산에도 불구하고 60여만b/d를 증산했으며, 2002년에는 총 100만b/d 증산을 예상하고 있다.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들의 생산쿼터 준수 여부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OPEC은 2001년에만 3차례 걸친 감산으로 2001년 초 대비 13.1%(350만b/d)를 감산했는데 1월 150만b/d, 3월 100만b/d, 7월 100만b/d 감산한데 이어 12월 다시 150만b/d 감산기로 결정함으로써 총 감산규모가 500만b/d(18.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OPEC의 생산쿼터 초과량도 2001년 11월 71만b/d를 나타내고 있다.

산자부는 세계경제 회복이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 등 계속적인 악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석유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국제유가의 단기 급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OPEC은 11개 회원국 석유장관 및 주요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12월2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119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OPEC 국가 생산쿼터를 총 150만배럴 감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001년 11월 제118차 총회에서 비OPEC 국가의 50만배럴 감산을 전제로 150만배럴을 감산하겠다고 결의한 사항을 최종 합의한 것이다.

현재까지 비OPEC은 러시아(15만b/d), 노르웨이(15만b/d), 멕시코(10만b/d), 오만(4만b/d), 앙골라(2만2500b/d) 등 5개국이 총 46만2500b/d를 감산기로 결정했다.

OPEC 국가들은 비OPEC국가들의 감산규모가 자신들이 요구한 50만배럴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150만배럴 감산을 단행할 충분한 명분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유 도입물량 및 도입단가 동향 (단위: 1000bbl, 100만달러, %)

구 분		2001	2002	증감
상반기	물량	456,840	470,984	3.1
	금액	11,839	9,655	△18.4
	단가	25.91	20.5	△20.9
하반기	물량	402,553	415,016	3.1
	금액	8,197	10,168	24.0
	단가	20.36	24.5	20.33
합 계	물량	859,393	886,000	3.1
	금액	20,036	19,823	△0.5
	단가	23.31	22.37	△3.5

+ 2001년 단가 : CIF기준 연평균

++ 2002년 단가 : 2002년 국제유가 평균전망+예상 가격차(1.5달러)

+++ 2002년 도입물량 : 총 예상량 8억8600만배럴을 2001년 동일비율로 상반기-하반기 배분

산자부는 OPEC의 실물감축량이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돼 2002년 상반기에는 현재 유가 수준인 Dubai유 기준 18-2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축효과와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가서야 22-24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는 2002년 연평균 유가수준을 2002년의 23달러 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 석유공사는 쿼터 감축시 연평균 21달러 내외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1/ 03>